

법무부, 출입국·이민분야 협력 강화논의를 위해 주한 미국 총영사 면담

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월 22일(화) 폴 허먼(Paul J. Herman) 주한 미국 총영사와 국토안보부 지부장(Taekuk Cho), 세관국경보호국 주재관(Pete Acosta) 등을 만나 양국 간 출입국·이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양국 국민들의 출입국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및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면담에서 “양국 국민들이 출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서로의 나라를 오갈 수 있도록 양국 간 대화와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뿐만 아니라 미국 이민당국과도 상시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해 다양한 출입국 현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허먼 총영사 역시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깊게 공감한다”고 화답하였습니다.

아울러 차 본부장은 공관의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묻고, 출입국·이민 분야와 관련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경을 오갈 수 있도록 주한 공관 및 해외 이민당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책임자	과 장	유성오	(02-2110-4010)
		담당자	사무관	김은호	(02-2110-4014)